

ISSN 1975-8553

평화학논총 | 2017. 12 | 제7권 2호

홍익인간사상의 민족사적 위상과 21세기적 가치

김 광 린

지 구 평 화 연 구 소

홍익인간사상의 민족사적 위상과 21세기적 가치

김 광 린(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I. 서 론

II. 홍익인간사상의 민족사적 위상과 주요내용

1. 한민족의 문화적 DNA
2. 홍익인간사상의 주요내용

III. 홍익인간사상의 21세기적 의미와 가치

1. 정체성 확립의 중심사상
2. 민족화합과 통일의 토대사상
3. 창의적 인간모델의 사상

IV. 맺는 말

【논문요약】

21세기 초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앞에 보혁간, 계층간, 세대간, 그리고 지역간 갈등과 마찰, 새로운 경제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문제, 환경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문제, 인접국가들과의 역사 분쟁,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 지구촌 공동의 문제 등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이 논문이 중시한 것은 민족(혹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자기반성적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구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민족사의 시원에서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홍익인간사상이라는 정신문화 유산에서 그 답을 찾았다. 홍익인간의 이상을 이 시대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면, 민족정체성과 중심성을 확립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 문제들은 물론 민족화합과 통합, 그리고 지구촌 공동의 과제들에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홍익인간사상은 한민족이 시원부터 함께 해 온 고유의 사상으로 정치공동체 건설의 사상적 토대이었고, 우리 자신이 우주적 질서와 조화에 의해 태

어난 신성한 존재라 믿는 자기 정체감과 자존의식이 담겨 있는 사상이다.

홍익인간사상은, 사람을 포함하여 우주만물이 ‘하나’라는 동일한 근원으로 부터 갈라져 나온다고 보는 우주공동체의 사상이다. 중요한 점은 홍익인간 사상에서 특히 사람은 우주운행의 근본원리가 온전히 내재되어 있는 존재로, 우주만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에 책임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사상의 주요특징의 하나는 인간중심주의 및 인간을 단순히 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격하하는 신본주의의 그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고 신인합일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다. 본성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가능태로 내재되어 있는 창조주의 성질, 곧 신성을 발견하고 이를 깨우쳐 신인합일을 이룬 사람이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사상은 우주만물을 포괄하는 평화사상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 땅,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간에 유익을 상호 제공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는 사상이다. 한편 홍익인간사상이 지향하는 것은 성통(性通), 곧 신인합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적의 완수, 곧 현실 생활에서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사회 현실 속에서 최적으로 구현하는 문제에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상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사상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간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보편적 평화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종교와 민족을 넘어 지구인 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이 요구되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지구인으로서의 공동 정체성의 사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홍익인간사상은 남북에서 공히 국조로 인정되고 있는 단군에 의해 수립된 고조선의 건국이념이기에 상이한 가치와 체제를 유지하며 대립해온 남북에 의해 공동의 정체성 및 가치관의 원천으로 공유될 가능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조화와 융합의 관점을 지니고 있는 홍익인간사상은, 융합과 창의를 지닌 인간이라는 21세기형 인간모델과 관련하여서도 큰 시사를 주는 사상이다.

I. 서론

21세기의 초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앞에 다양한 과제와 난제들이 놓여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 진보와 보수간, 계층간, 세대간, 그리고 지역간 갈등과 마찰이 얹혀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문제, 환경문제, 무역마찰 문제, 그리고 인접국가들과의 역사 분쟁 등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협력적 남북관계의 구현은 물론,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도 대비해야 하는 민족사적 과제와 사명이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심화된 상호의존의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어느 국가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다. 식량, 수자원, 기후와 환경 등 삶의 기본조건 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운명체적 상황에 처하게 됨은 물론, 인류전체의 삶의 터전인 지구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인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은 물론이다.

여기서 점검해 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국내적, 남북관계적, 그리고 범지구적 도전과제들에 응전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사회통합을 이루며 국가적 당면과제들에 맞서 나가야 할 주된 책임은 정치분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분야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해법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 논문이 중시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하는 존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은 자신을 점검하는 것에 있고, 자신을 점검하는 핵심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혹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자기반성적 성찰은 곧 우리민족은 무엇인

가, 그리고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상은 무엇인가 하는 성찰로 연결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민족사의 시원에서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홍익인간사상이라는 정신문화 유산이 있다. 홍익인간의 이상을 이 시대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면, 민족정체성과 중심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 문제들은 물론 민족 화합과 통합, 그리고 지구촌 공동의 과제들에도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입장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상을 바로 잡는 일,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 그리고 지구촌 공동의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일이 얼핏 보기에 아무 연관없이 존재하는 별개의 일들 같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밀접한 연관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즉 만성적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과 혼란을 극복할 때 우리는 민족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국가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화합과 교류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룸으로써 인류평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인류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 사상,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형태들이 들어와 있으며, 따라서 한민족이 협력적 관계, 더 나아가 통합적 관계를 이루어 내는 경우 이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이념의 통합, 상이한 경제체제간의 융합, 상이한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동서양간 본질적 화해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 논문은 II장에서 홍익인간사상의 민족사적 위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정체성 확립의 중심사상, 민족 화합과 통합의 토대사상, 창의적 인간모델의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홍익인간사상의 의미와 가치에 관해 논한 다음 결론을 제시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Ⅱ. 홍익인간사상의 민족사적 위상과 주요내용

1. 한민족의 문화적 DNA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Carl Gustav Jung, 1875. 7.26 ~ 1961. 6. 6)이 제시한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개념은 홍익인간의 이상이 지니는 위상을 파악 및 정립하는 유용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집단무의식은 분석심리학의 중심개념의 하나로,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된 정신적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홍익인간사상은 한민족의 무의식과 의식세계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문화적 DNA이다.

홍익인간사상은 단적으로 한민족이 시원에서부터 장구한 역사과정을 거치며 축적해온 고귀한 체험이자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다. 면면히 흐르고 있는 홍익의 전통과 문화적 DNA속에서 한민족은 지역, 종교, 계급을 초월하여 커다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앞으로도 영구히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융의 집단무의식 개념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진화에 의해 선천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의 아득한 과거에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은 물론,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선조들과 인류의 과거, 더 나아가 생물진화의 태초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들로 인해 사람은 자신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다. “개인이 태어난 세계의 형태는 이미 잠재적 이미지로서 선천적으로 그에게 갖추어져 있다.”¹⁾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행동의 원형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집합 무의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 사람들이 특정한 유형들을 보다 익숙하게 지각하고, 그것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쉬운 이유는 집합무의식에 그 소인이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홍익인간사상은 한민족이 시원에서부터 실천

1) C. G. Jung, *Collected Works*, vol. 7, p. 188.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 심층에 내면화된 문화적 DNA이다.

『삼국유사』 등 단군조선 개국 관련 여러 기록들을 종합하면, 홍익인간의 이상은 한민족이 단군조선을 건국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치관, 삶의 목표, 그리고 추구하려던 이상이었고,²⁾ 단군조선의 건국 시 통치이념으로 승계되었다. 즉 홍익인간의 이상은 한민족 우리는 과연 어떤 민족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등 민족적 정체성을 정초하는 결정적 단초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홍익인간의 이상을 인간세상에 실현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던 환웅에게 환인이 천부인을 주며 그 이상을 펼치도록 격려하였고, 이에 환웅이 배달의 신시공동체를 열어 홍익인간의 이상 하에 교화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환웅의 교화과정에서 탄생한 단군왕검에 의해 건설된 고조선이라는 정치공동체를 통하여 한민족의 선조들이 오랜기간 실천한 이상이 바로 홍익인간의 이상이었다.

홍익인간사상은 인류 역사를 통털어 다른 어떠한 민족도 표방한 적이 없었던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다. 또한 홍익인간은 세계 어느 나라의 건국이념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한민족만의 것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실현하려던 이상과 비전이다. 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정치공동체를 통하여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이상과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한민족 고유의 철학적 대답인 것이다.

한마디로 홍익인간사상은 한민족이 시원부터 함께 해 온 고유의 사상으로 정공동체 건설의 사상적 토대이었고, 우리 자신이 우주적 질서와 조화에 의해 태어난 신성한 존재라고 믿는 자기 정체감과 자존의식이 담겨 있는 사상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민족을 정의하자면, “홍익인간의 이상 하에, 역사를 시작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등 홍익인간을 삶의 목표와 실천 원리로 살아온 민족으로서, 홍익인간을 문화적 DNA로 내재한 민족”이라

2)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이 건국되기 이전, 곧 한국의 환인 천제가 환웅을 인간세상에 보낼 때부터 존재한 사상이다.

할 수 있다.

2. 홍익인간사상의 주요내용

가. 사해일가 혹은 우주공동체

홍익인간사상은 우주의 근본원리 혹은 진리 또는 근원생명을 ‘하나(一)’로 표시한다.³⁾ 이에 의하면, 이 ‘하나’로부터 사람을 포함하여 우주만물이 갈라져(析) 나온다. ‘하나’로부터 갈라져 나온 우주만물은 하늘(天), 땅(地), 그리고 사람(人)의 삼극(三極)으로 표현된다. 천(天), 지(地), 인(人), 곧 우주내 모든 존재가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사상을 천지인 사상이라 하는데, 이는 우주만물이 ‘일가(一家)’를 이룬다는 ‘우주적 범위의 공동체 사상에 다름아니다.’⁴⁾

그리고 우주운행의 근본원리, 곧 진리로부터 만물이 갈라져 나와 우주라는 단일의 집안을 이룬다는 관점은, 인격신이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며, 따라서 이 세상이 창조주와 그에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로 구성된다는 이원론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에서 우주만물은 ‘하나’의 근원성을 공유하며, 이러한 점에서 우주만물과 ‘하나’의 일원성이 견지된다. 우주운행의 근본원리인 ‘하나’는 자유의지 그 자체이며, 또 큰 사랑(大德), 큰 지혜(大慧), 그리고 큰 힘(大力)의 속성을 지니는 바, 이로부터 갈라져 나왔기에 우주만물 또한 ‘하나’의 자유의지와 그 속성을 공유한다.⁵⁾ 그러므로 사해일가를 이루는 모든 존재들 간에 조화와 상생은 당위적인 가치이다.⁶⁾

3) 김광린, “‘한(하나, 一)’과 한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홍익인간,” 『평화학논총』, 제5권 1호.

4) 한영우, 『한국선비지성사』(파주: 지식산업사, 2010). 홍익인간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글자의 하나인 홍(弘)의 범위는 우주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

5) 김광린, 앞의 논문.

6) 위의 논문.

중요한 점은, 홍익인간사상에서 사람은 우주운행의 근본원리가 온전히 내재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⁷⁾ 사람은 ‘하나’의 ‘자유의지’와 품성을 온전히 내재한 존재, 곧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이며, 모든 사람은 이러한 점에서 주체적 존재이자 상호 공경해야 하는 존재이다.

홍익인간사상이 내포하는 이상적인 우주공동체란, ‘하나’의 속성을 공유한 우주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을 이룬 가운데 자유로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⁸⁾ 조화란 획일화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잘 어우러지는 것을 뜻한다. 차이와 다름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가 최적으로 잘 결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신뢰, 관용, 양보, 그리고 배려라고 하는 여러 관계적 가치들이 필수적이다.

상호 존중과 조화로움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에서도 중시된다. 사람은 ‘하나’의 속성과 품성을 온전히 내재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늘과 땅보다 지배적 위치에 서는 것은 아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삼원(三元)간 다름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다름은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로부터 갈라져 나온 존재들 간 조화를 이루어야 할 능력과 도덕적 책임감을 지니는 존재일 뿐이다.⁹⁾ ‘하나’는 체(體)이고,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 등 삼원(三元)은 각기의 특성을 지니는, 즉 상이함을 지니는 ‘하나’의 용(用)으로, 삼원 간 다름을 유의하면서 조화와 합일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속성을 온전히 지닌 사람이 그 책임을 지닌다.

요약하자면, 사람에게는 우주운행의 근본원리인 ‘하나’의 품성과 속성이 온전히 내재해 있는 바, 사람은 이를 깨달아 진리와의 합일을 이루고(성통,

7) 김석진, 『대산의 천부경: 하늘 땅 사람이야기』(서울: 동방의 빛, 2009), p. 86.

8) 위의 책, p. 89.

9) 위의 책, p. 87.

性通), 깨달음의 실천적 차원으로서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해 나가는(공완, 功完) 평화구현의 책임자이다. 실제로 사람이 조화를 실현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지배자로 군림할 때 세상 및 자연질서는 크게 교란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수행을 통하여 진리(‘하나’)와의 합일, 곧 신인합일을 이루어 도덕적 책임자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신인합일을 이뤄 조화심을 지닌 홍익인간들에 의해 우주운행의 근본질서가 보편적으로 관철된 세계, 그리하여 인류문명과 자연질서가 상호 보완하며 조화롭게 작동하는 세계가 이화세계이다.

나. 신인합일과 천지인합일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신인합일은 홍익인간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홍익인간사상의 주요 특징은 인간중심주의(또는 유물주의), 그리고 인간을 단순히 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격하하는 신본주의의 그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고 신인합일의 경지를 당연히 한다는 점이다. 본성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가능태로 내재되어 있는 창조주의 성질, 곧 신성을 발견하고 이를 깨우쳐 신인합일을 이룬 사람, 곧 소우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 사람이 홍익인간이다.

21세기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변증법적으로 종합되는 시기, 절대다수의 사람이 자신에 내재하는 정체성을 바로 깨우쳐 도덕적 혹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류문명시대의 실현이 요청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점에서 홍익인간사상은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인류사회의 발전에 부합하는 사상이다.

『삼국유사』 등 관련 사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민족의 건국이념은 ‘재세이화 홍익인간(在世理化 弘益人間)’이다.¹⁰⁾ 이는 “이 세상을 우주의 이치로 이끌어,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는 정치공동체를 경영한다는 의미이

10) 일연 저, 김원중 역, 『삼국유사』(서울: 을유문화사, 2004), pp. 35~39.

다. 깨달은 후(성통), 세상과 거리를 두고 홀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아완성을 이루는 데 기여할 정치공동체를 경영, 모든 구성원들이 참다운 행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공완). 우주운행의 근본원리가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되도록 하겠다는 원대한 비전, 이 것이 바로 정치공동체 건설 및 경영의 목적인 것이다. 홍익인간의 이상으로 인간세상을 다스려 여여불변하는 우주적 질서와 조화가 보편적으로 실현된 세계, 곧 이화세계를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세계관과 목표를 읽을 수 있다.

환웅의 교화활동, 그리고 단군의 정치공동체 건설에 관한 기록을 보면, 활동의 무대로서 천(天)과 천하(地)가 등장하고, 자신의 본성을 깨우쳐 거듭난 사람, 영과 육 양면에서 온전한 이른바 영육쌍전(靈肉雙全)의 사람의 상징으로 웅녀(人)가 등장하고 있다. 지손적 존재가 참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간절한 염원과 자발적 선택을 하고, 참사람이 되는 공부를 통하여 지손적 존재로부터 자기 내부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신성을 깨우쳐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¹¹⁾ 즉 사람(人)이 천지와 합일을 이루는 천 지 인 3자 동격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홍익인간사상은 이러한 경지를, “마음을 밝힌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녹아들어가 있다(人中天地一)”라 한다.¹²⁾

다. 보편적 평화의 사상

홍익인간사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 땅,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간에 유익을 상호 제공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보편적 평화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즉 홍익인간사상은

11) 인간이 신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신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는 신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 고유의경전의 하나인 「삼일신고」는 신훈편에서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서 그 씨앗을 찾으라 너의 뇌 속에 이미 내려와 계시니라”(自性求子 降在爾腦)라 적고 있다.

12) 인중천지일은 하늘과 땅이 내안에 들어온 완전한 사람, 곧 신인합일(神人合一)을 이룬 사람을 의미한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간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단군조선 건국 관련 기록에 의하면, 웅족과 호족 등 다수의 종족이 인접하여 거주하고 있었는 바, 그 종족들이 환웅이 다스리는 신시 배달국의 수준 높은 홍익문화를 선망하여 찾아 왔고, 배달국이 이들에게 수련과정 참여를 허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홍익인간사상은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인종불문 모든 인간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사해동포주의적인 사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홍익인간, 곧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고 할 때의 인간(人間)은 우리나라 말의 본래 어법상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관계적으로 얹혀서 형성되는 세상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서구의 사회관에서는 개인이 사회의 핵심적 구성체이며, 사회관계와 질서는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2차적인 것이다. 즉 서구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사와 의지, 그리고 타산에 의거하여 타인과 맺은 계약으로부터 사회질서가 형성된다.¹³⁾

이와는 달리 홍익인간사상에서 사회는 타산의 산물이 아니라 시월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自然)은 스스로 자(自)와 그러할 연(然)이 결합된 용어로 ‘스스로 그러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근원생명인 ‘하나’로부터 만물이 갈라져 나왔기에 그 만물은 ‘하나’의 생명성과 속성, 그리고 자유의지를 공유한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전체로서의 우주만물은 곧 하나의 자기 현신이며, 그러기에 스스로 그러한 존재, 곧 자연인 것이다. <우주만물=자연=‘하나’>의 등식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¹⁴⁾

홍익인간사상에서 근원생명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하늘과 땅과 사람,’ 곧 우주만물은 사회(우주공동체)의 필수적 구성요소들로서 상호 깊은 연관 속

13) Samuel P. Huntington, "The West Unique, Not Universal," *Foreign Affairs*, Vol. 75, No. 6(November/December, 1996), pp. 30-35.

14) 이러한 점에서, 근원생명성을 구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단지 이용할 대상 내지 생활환경으로 간주하는 서구의 ‘nature’와 한민족의 ‘자연’은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에 존재한다. 즉 우주만물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얽혀져 있는 가운데 유익을 상호 제공하는 존재이다.

요컨대, 홍익인간사상은 좁게는 나와 민족과 이웃나라와 인류,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주내 모든 존재 간의 상생과 합심대도의 보편적 평화사상이다.

라. 개전일체(改全一體)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홍익인간의 이념은 신인합일의 경지를 추구하고 재세이화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보편적 평화질서의 구현을 실천적 목표로 삼는 사상이다. 깨달음의 실천, 곧 앎과 행동의 합일을 중시하는 사상인 것이다.

“환웅은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과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였으며, 인간세상에 머물며 이치와 원리가 구현되도록 하였다.”¹⁵⁾

신인합일의 각성을 이룬 존재가 홍익인간의 이상 하에 인간살이의 360여가지 일들을 두루 맡아보며 세상을 우주적 원리와 이치가 통하는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조화로운 사회와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와 사회 변혁의 정신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 중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비, 구름, 바람을 관측하는 등 기후에 관한 업무, 그리고 곡식을 생산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배달국 시대에 농경이 중요한 산업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¹⁶⁾ 농경과 목축의 발전은 빙하기가 끝나고 수렵과 채집으로

15) 『삼국유사』, p. 35.

16) 윤내현, 『고조선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서울: 민음사, 1998), p. 186.

부터 농경으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당시 사회적 여건에서 이뤄진 생산양식 상의 큰 변화로서, 인류 최초의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것이다.¹⁷⁾

즉 신인합일 또는 영육쌍전(靈肉雙全)의 인간이 이상적인 사람이듯이, 한 민족의 선조들이 실현하려 했던 이상적 공동체로서의 신시는 첨단 생산기술의 발전과 이에 입각한 건실한 사회 경제 공동체를 토대로, 정신적으로는 신인적 높이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나(個)와 공동체(全)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해 보거나 어느 하나를 보다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즉 홍익인간의 사상 체계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간 동일성이 관철되며, 이는 개인차원에서 신인합일,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 천지합일의 원리와 부합하는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은 고립이나 격리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한 고립적인 또는 배타적인 노력은 그 자체가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이미 홍익이라는 말과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이 지향하는 것은 성통(性通), 곧 신인합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적의 완수, 곧 현실 생활에서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정신과 물질은 물론, 나와 ‘나 이외의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타의 발전과 완성이 곧 나의 발전과 완성임을, 곧 전체의 완성과 나의 완성이 동일성을 견지하는 사상이다.

마. 자유와 평등의 이상적 조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사회 현실 속에서 최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역사 이래 인류 보편의 이상적 목표 혹은 과제로 남아 있다. 홍익인간사상이 이러한 과제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사회 구성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상호 존중, 개인의 존엄과 창의성 등 자유민주

17) 위의 책

주의적 가치들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간의 조화와 상생, 대동주의, 공동체에 대한 봉사 등 우리가 용인가능한 수준의 사회주의적 가치들도 함유하는 등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¹⁸⁾

단군의 건국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참다운 인간이 되어 자기완성을 이루기 위한 수련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우월적 존재에 의한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당사자의 간청, 곧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이는 자유의지 및 그에 기반한 선택의 존중이다. 그리고 옹족과 호족 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구도에서 종족과 남녀 불문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상은 논리적으로 모든 존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상호 대등한 관계가 불가능하며, 그러한 상태가 널리 이로운 관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인간들 간의 관계야말로 참다운 의미에서 평등한 관계라 할 수 있으며, 신과 인간간 관계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경지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단군의 건국관련 기록에 있는 성 상징체계를 통해서도 자유와 평등이 최적으로 조화를 이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서양 사회의 창세에 관한 문헌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의 것인데, 이 경우 남성신 개념이 강조되면서 남녀 두 성(gender) 간의 관계가 지배와 종속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메시아 예수의 탄생관련 설화도 신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동정녀 수태로 그려지는 등 남성성과 여성성 간 상하 지배와 종속적 관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 간 정상적인 수태 과정 또한

18) 정연식, “홍익인간사상의 정치학적 고찰,” 『홍익인간사상과 민족통일』, 홍익문화통일협회, 2000.

부정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서양사회의 이러한 남녀간 상하 종속적 관점은 서양신화와 건국설화 일반에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원리를 「하늘.낮.정신.마음」으로, 여성원리를 「땅.밤.물질.몸」으로 보는 2원론적인 세계관과 사고방식으로 고착되었다. 남성은 합리적, 이성적, 그리고 우월적 존재로, 이에 반해 여성은 비합리적, 비이성적, 그리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출산의 고통은 이른바 원죄에 대한 형벌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등 대부분의 서양 창세문헌은 천지의 개벽을 남신들이 여성신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¹⁹⁾

이와 대조적으로 단군조선 건국관련 기록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간의 관계가 친밀한 화합의 구조로 표현되어 있다. 고도의 암시적 표현만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군왕검의 탄생은 부자연스런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정상적 잉태의 과정을 거친다. 출산이 형벌이 아니라 생명출산의 아름다운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 성은 부정적이거나 타락의 원천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남성과 여성간 친밀한 화합,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그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홍익인간의 기치 하에 전개된 환웅과 단군의 활동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나의 종족과 타종족이, 자유와 평등의 토대위에 상생과 조화를 이룰 때 큰 화합은 물론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점이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화학적으로 융합된 모습은 단군조선 및 그 유습이 강하게 남아 있던 고대시기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고대시기 우리민족은 5월과 10월 거국적으로 하느님에게 제를 올리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 때 온 나라의 사람들이 신분의 상하 및 남녀 간 차

19) 일례로, 그리스 신화의 경우 제우스(Zeus)는 대지의 신 타이폰(Typhon)을 죽이고, 바빌론의 경우 남성신인 마르둑(Marduk)은 여성신 티아마트(Tiamat)을 죽인다. 카렌 암스트롱, 배국원 외 옮김, 『신의 역사』(서울: 동연, 1999), pp. 31-38.

별없이 함께 음식, 술, 노래와 춤을 즐겼다. 이웃 나라인 중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 속에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술마시고 춤추며 노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²⁰⁾

그러면 이와 같은 홍익인간사상이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Ⅲ. 홍익인간사상의 21세기적 의미와 가치

서론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다양한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 진보와 보수간, 계층간, 세대간, 그리고 지역간 갈등과 마찰이 얹혀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문제, 환경문제, 무역마찰 문제, 그리고 인접국가들과의 역사 분쟁 등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심화된 상호의존의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어느 국가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다. 식량, 수자원, 기후와 환경 등 삶의 기본조건 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것도 한국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홍익인간사상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정체성 정립, 민족화합과 통합, 그리고 21세기형 인간모델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정체성 확립의 중심사상

20) 윤내현, 앞의 책.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국내적, 남북관계적, 그리고 지구적 도전과제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해법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해보는 것이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은 자신을 점검하는 것에 있고, 자신을 점검하는 핵심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민족사의 시원에서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홍익인간사상이라는 정신문화 유산이 있다. 홍익인간의 이상을 이 시대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서 민족정체성과 중심성을 확립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 문제들은 물론 민족화합과 통합, 그리고 지구촌 공동의 과제에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상을 바로 잡는 일,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 그리고 지구촌 공동의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일이 얼핏 보기에 아무 연관없이 존재하는 별개의 일들 같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만성적 사회갈등과 대립과 혼란을 극복할 때 민족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국가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화합과 교류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룸으로써 인류평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인류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 사상,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형태들이 들어와 있으며, 따라서 한민족이 협력적 관계, 더 나아가 통합적 관계를 이루어 내는 경우 이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이념의 통합, 상이한 경제체제간의 융합, 상이한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동서양간 본질적 화해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민족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정신적 중심을 확립하는 것이고, 중심을 확

립한 민족은 복원력이 잘 갖추어져 험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배와 같이, 어려움을 헤치고, 오히려 어려움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역사적 사명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한편 보수와 진보의 원조인 서구사회에서는 양자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단계로 이미 진입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도 외래의 편향된 이념적 입장과 기준에 의거 분열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철지난 보수와 진보간 에너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길은 민족정체성을 확립하여 균형된 감각과 인식을 되찾는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은 이러한 중대한 과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게 된다. 한민족은 홍익인간의 이상 구현을 목표로 역사를 시작하였고, 공동체를 건설하였고, 홍익인간을 삶의 실천 원리로 채택한 민족이며, 이를 유전자 속에 보유하고 있는 민족이다. 즉 홍익인간은 정신사적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홍익인간사상을 민족정체성 확립의 중심사상으로 삼을 때, 우리가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의 기반을 확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홍익인간사상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간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보편적 평화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종교와 민족을 넘어 지구시민 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이 요구되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지구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정립의 토대사상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2. 민족화합과 통합의 토대사상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승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¹⁾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개인과 인간 및 경쟁을 과도히 중시하는 등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계승하되

21) 프랜시스 후쿠야마 저,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서울: 한마음사, 1992).

그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민족화합 및 통합의 새로운 통일이념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홍익인간사상이 민족화합,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일한국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역사적 측면에서 홍익인간은 단군왕검에 의해 수립된 고조선의 건국이념이며, 단군왕검은 남북에서 공히 국조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의 이념은 상이한 가치와 체제를 유지하며 대립해온 남북에 의해 공동의 정체성 및 가치관의 원천으로 공유될 가능성이 높은 이념이다. 물론 홍익인간이 남북한 모두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념은 아니지만 남북한이 공동으로 표방할 이념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홍익인간사상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홍익인간사상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간 공유가능성이 높은 사상이다. 홍익인간사상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들, 그리고 사회구성원간의 조화와 상생, 대동주의, 공동체에 대한 봉사 등 우리가 용인가능한 수준의 사회주의적 가치들도 함유하고 있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합해낼 수 있는 여지를 지니는 사상이다.

셋째, 홍익인간사상은 남북한이 각기 겪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 특히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간 관계의 올바른 정립에 기여함으로써 통일이후의 통합과정에도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극단적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기본적 가치관의 혼란과 각종 사회적 부조리를 겪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는 상이한 원인과 양태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도 나름의 부조리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적 억압, 극심한 빈곤과 기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자체가 개인과 국가 등 제반사회관계의 긴장과 혼란을 상징하는 것

이다. 널리 인간세를 이롭게 한다는 정신, 곧 공공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홍익인간 사상이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존재가 상호연관 속에 존재한다고 보는 홍익인간사상의 사유체계 속에서 인간 존재 또한,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과 달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식되고 규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충효신용인(忠孝信勇仁)이라고 하는 덕목들이 사회관계와 질서의 기초가 되어 왔다.²²⁾ 관계를 중시하는 홍익인간사상은 통일이전의 단계에서 남북한 사회의 도덕적 정화는 물론 동질성 회복과 관련하여 기여할 여지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일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홍익인간사상은 우주내의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평화사상이며, 이러한 점에서도 민족통일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홍익인간사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 땅,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간에 유익을 상호 제공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우주내 모든 존재간의 공존공영은 세계의 모든 사상과 철학 및 종교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다. 환경 오염 등 현재 인류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원천적으로 위협하는 범지구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의 해결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의 입장을 초월하여 나와 민족과 인류를 하나로 인식하는 지구인 의식 차원의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홍익인간이 한민족에 의해 통합의 사상으로 채택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3. 창의적 인간모델의 사상

홍익인간사상은 21세기 우리민족은 물론 전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해 나아가 할 이상적 인간 모델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22) 김광린, “화랑도와 지구시민 정신,” 경주시와 경북국학원 공동주최 제1회 청소년 화랑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7. 11.25.

21세기에 적합한 인간 유형과 자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데에 대해 대략적 합의가 존재한다. 창의성이란 본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 가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21세기에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다.²³⁾ 경쟁이 초래한 모든 부정적 결과를 뛰어 넘어 공존공영의 정신문명 시대를 여는 문제와 관련하여 창의성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인류는 현재 가정, 학교, 사회 등 사회생활과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제도를 창안해야 할 필요에 몰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상상력과 실험 정신 또는 기존체제나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태도나 능력 등 융합과 창의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²⁴⁾ 개체의 생존은 물론 전체 인류와 지구 자체의 생존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세계문명사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의 원대한 창의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융합능력과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그와 같은 사람이란 창조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뇌란 인간 신체의 일부분으로, 즉 인간이 소유하는 정신 능력의 일부로 인식되지만 뇌는 인간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생명인 뇌는 주체적 의식인 나와 동일하다. 뇌가 곧 인간 존재 자체이고 마음이다.²⁵⁾

창의성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정보에 대한 강한 요구, 강한 성취 동기, 정보의 활용, 사고의 유연성 등은 물론,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역사의식 등 장기적 안목과 총괄적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 등도 중요한 자질로 간주되고 있다.²⁶⁾ 미래

23)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모임, 『창의혁명』(서울: 코리아닷컴, 2018).

24) 이성진 편, 『한국교육학의 맥』(서울: 나남출판, 1994), pp. 327-328.

25) 이 홍 외 지음, 『지식과 창의성 그리고 뇌』(서울: 청람, 2005).

26) 이성진, 앞의 책, pp. 329-330.

의 생존은 일방의 희생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을 인정받는 상생과 조화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간의 관계에서는 물론 인간과 자연간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상호 연관 속에서 지구의 공동 운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시야로 사물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심화된 상호의존의 국제관계 속에서 이러한 태도와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게 되었다. 즉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시각과 안목 등이 21세기에 바람직한 자질이다.²⁷⁾

창의적 사고의 상당 부분은 합리적 수준을 넘어 서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홍익인간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예컨대, 홍익인간사상의 사유체계의 기저에는 “도(道)의 가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서 대극(對極)을 타협하는 힘에 있다.”는 조화와 융합의 관점이 놓여 있다. 균형된 삶의 방식을 성취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대극을 포함하는 지혜는 조화로운 삶의 방법의 핵심이다. 도(道)의 상태에서 주체와 객체 사이의 구별이 소멸되는 바, 도의 상태란 지적 과정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자각의 문제이다. 홍익인간사상의 사유 체계 속에서 개인과 사회, 나아가 자연과 우주는 별개가 아니라 통합된 하나, 곧 천인합일(天人合一) 또는 우아일체(宇我一体)이다. 개체와 전체의 관계는 소아와 대아의 관계이며, 인간과 신간의 관계도 별개가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합일(神人合一)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접근된다.²⁸⁾

IV. 맺는 말

27) 필립 카터 지음, 최승언 외 옮김, 『역시 창의성이다』(서울: 아트나우, 2002).

28) 이러한 전통에서 가르치는 일 보다는 배우는 것에 더 큰 가치와 비중이 주어진다. 스스로의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을 추구하는 것, 즉 신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중시된다.

21세기의 초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앞에 진보와 보수간, 계층간, 세대간, 그리고 지역간 갈등과 마찰, 새로운 경제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문제, 환경문제, 무역마찰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문제, 그리고 인접국가들과의 역사 분쟁 등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등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 또한 우리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해법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이 논문이 중시한 것은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하는 존재인가?” 라는 민족(혹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자기반성적 질문이었다.

이러한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도 민족사의 시원에서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홍익인간사상이라는 정신문화 유산이 있다. 홍익인간의 이상을 이 시대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면, 민족정체성과 중심성을 확립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 문제들은 물론 민족화합과 통합, 그리고 지구촌 공동의 과제들에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개한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홍익인간사상은 한민족이 시원부터 함께 해 온 고유의 사상으로 정치공동체 건설의 사상적 토대이었고, 우리 자신이 우주적 질서와 조화에 의해 태어난 신성한 존재라고 믿는 자기 정체감과 자존의식이 담겨 있는 사상이다. 이를 토대로 한민족을 규정하자면, 홍익인간사상을 토대로 역사를 시작하였고, 홍익인간 이상의 현세적 실현을 목표로 공동체를 건설하는 등 홍익인간을 삶의 목표와 실천 원리로 살아온 민족으로, 홍익인간을 DNA로 내재한 민족이라 할 수 있다.

홍익인간사상에 의하면, 사람을 포함하여 우주만물이 ‘하나’라는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갈라져 나온다. 천(天), 지(地), 인(人), 곧 우주내 모든 존재가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사상을 천지인 사상이라 하는데, 이

는 우주만물이 ‘일가(一家)를 이룬다는 우주공동체 사상에 다름 아니다. 중요한 점은 홍익인간사상에서 특히 사람은 우주운행의 근본원리가 온전히 내재되어 있는 존재로, 우주만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에 책임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사상의 주요특징의 하나는 인간중심주의 및 인간을 단순히 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격하하는 신본주의의 그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고 신인합일의 경지를 당연히 한다는 점이다. 본성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가능태로 내재되어 있는 창조주의 성질, 곧 신성을 발견하고 이를 깨우쳐 신인합일을 이룬 사람, 곧 소우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 사람이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사상은 우주만물을 포괄하는 평화사상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 땅,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간에 유익을 상호 제공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즉 홍익인간사상은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간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보편적 평화의 사상이다.

홍익인간사상은 나와 공동체(전체)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해 보거나 어느 하나를 보다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홍익인간의 사상 체계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간의 동일성이 관철되며, 이는 개인차원에서 신인합일,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 천지합일의 원리와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홍익인간사상은 고립이나 격리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홍익인간사상이 지향하는 것은 성통(性通), 곧 신인합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적의 완수, 곧 현실 생활에서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타의 발전과 완성이 곧 나의 발전과 완성임을, 곧 전체의 완성과 나의 완성을 동일시하는 사상이다.

홍익인간사상은 사회구성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상호 존중, 개인의 존엄과 창의성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들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

원간의 평등, 상생, 공동체 존중 등 사회주의적 가치들도 함유하는 등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사회 현실 속에서 최적으로 구현하는 문제에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상이다.

이상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 홍익인간사상은 정신사적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상이기도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존재간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보편적 평화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종교와 민족을 넘어 지구인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이 요구되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지구인으로서의 공동 정체성의 사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서 홍익인간은 단군에 의해 수립된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 단군은 남북에서 공히 국조로 인정되고 있는 바, 홍익인간의 이념은 상이한 가치와 체제를 유지하며 대립해온 남북에 의해 공동의 정체성 및 가치관의 원천으로 공유될 가능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유 체계의 기저에 “도(道)의 가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서 대극(對極)을 타협하는 힘에 있다.”는 조화와 융합의 관점을 지니고 있는 홍익인간사상은, 융합과 창의를 지닌 인간이라는 21세기형 인간모델과 관련하여서도 큰 시사를 주는 사상이다.

참 고 문 헌

김광린, “‘한(하나, 一)’과 한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홍익인간,” 『평화학논총』. 제5권 1호.

-----, “화랑도와 지구시민 정신,” 경주시와 경북국학원 공동주최 제1회 청소년 화랑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7. 11.25.

김석진, 『대산의 천부경: 하늘 땅 사람이야기』, 서울: 동방의 빛, 2009.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모임, 『창의혁명』. 서울: 코리아닷컴, 2018.

윤내현, 『고조선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서울: 민음사. 1998.

이성진 편, 『한국교육학의 맥』, 서울: 나남출판, 1994.

이 홍 외 지음, 『지식과 창의적 그리고 뇌』, 서울: 청람, 2005.

일연 저, 김원중 역,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4.

정연식, “홍익인간사상의 정치학적 고찰,” 『홍익인간사상과 민족통일』, 홍익문화통일협회, 2000.

카렌 암스트롱, 배국원 외 옮김, 『신의 역사』, 서울: 동연, 1999.

프랜시스 후쿠야마 저,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 서울: 한마음사, 1992.

필립 카터 지음, 최승언 외 옮김, 『역시 창의성이다』, 서울: 아트나우, 2002.

한영우, 『한국선비지성사』, 파주: 지식산업사. 2010.

Huntington, Samuel P., "The West Unique, Not Universal," *Foreign Affairs*, Vol. 75, No. 6, November/December, 1996.

Jung, C. G., *Collected Works*, vol. 7.